

해맞이의 고장에서 생산된
영일촌 쌀을 먹읍시다.



영일촌 쌀

- 연일농협 2/10/20/40(kg) T.258-2036
- 흥해농협 2/10/20/40(kg) T.261-5010
- 기계농협 4/8/10/20(kg) T.247-2785



열린 포항
www.ipohang.org



장미

오월인줄 우째 알고
그대 참 총명도 하오.
그래 줌
계을도 부리고 싶어지련만
탄복하오.
그대 바지런함.
죽었다 깨도
그대 못 따르겠소.

단장은 그래
누가 도와주었소?
아니면 혼자 했소.
그 자태 곱기도 하오.
눈이 부시오.
붉은 그 빛깔.
감히 마주하기 송구하오.

못 사람들이
자네 내음 흥내 낸다 애들 쓰더니만,
그래도 어찌
당신 따를 수가 있겠소?
그냥 머~언 빛으로
탄복할 수밖에.

김숙임 시인

한국방송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졸업, 경북문학회원, 소청동 회원.
2000년 《수필과 비평》 수필 부문 신인상, 2001년 《순수문학》 시 부문 신인상

열린 포항

www.ipohang.org



»» 04



»» 08



»» 14



»» 17



»» 24

2009 5 CONTENTS

- 04 기획특집 | 포항의 자매도시와 국제교류 현주소
- 08 New Start Pohang | ② 본격화되는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
- 12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③ 연일을 인주리 적계못
- 14 문화칼럼 | 탄생 100주년, 한혹구는 누구인가
- 17 역사산책 | 포은 정몽주의 고향, 오천과 유허비
- 18 문화마당 | 2009 아시아 태평양 슈퍼모델선발대회
- 20 시정브리핑 |
- 23 의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6 I♥POHANG |
- 27 지상갤러리 |



비눗방울의 동심에 빠진 아이들
사진 • 정미향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김경란
- 발행일 : 2009년 5월 25일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매도시들과 녹슨 관계 닦고 해외 우호도시 교류협력 적극 추진

오늘날

대부분 도시들은 세계화를 지향한다. 하지만 그에 필요한 실질적 교류가 부족하여 투입 대비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포항'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 4기 박승호 포항시정은 통상외교 등 실질적 국제교류에 나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오는 5월 29일은 포항시와 일본 후쿠야마시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는다. '열린 포항'은 후쿠야마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포항의 자매 및 우호 도시 현황 등 국제교류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는 지역의 생존전략

포항은 오는 8월 국제항만인 영일만항을 개항한다. 이를 통해 '환동해권 국제물류 경제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으로서는 국내외의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는 이제 포항의 생존전략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질서 또한 국가보다는 도시간의 경쟁과 협력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진전되는 지방화에 기인하겠지만 세계화로 인해 기존의 국경 개념이 무너지고 지구촌이라는 한울타리 시장을 놓고 전 세계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일 것이다. 그래서 지역경쟁력 강화는 모든 도시들이 당면한 핵심현안이 되고 있다.

민선 4기 포항시정은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 국제교류에 적극 나섰다. 물론 그전까지 국제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몇 해외도시들과 자매결연도 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협정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자매도시들과는 먼지가 쌓이고 녹슨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자매도시들과 경제·문화 등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 때문에 포항의 생존은 물론 글로벌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녹슨 관계를 닦아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상호간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가 있어야 실질적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관계 복원과 신뢰 구축에 나섰다.



후쿠야마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포항의 가장 오랜 자매도시인 울해로 30년 지기가 되는 일본 후쿠야마시. 히로시마현 동남쪽에 위치한 후쿠야마시는 포항과 1979년 1월 19일에 자매결연했다. POSCO의 자매결연사인 신일본제철소가 소재한 철강 도시이자 해산물도 풍부한 수산도시이다. 그리고 인구나 시세는 물론 시화가 '장미'라는 점에서 포항과 무척 닮은 도시이다.

포항시는 후쿠야마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더욱 긴밀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29일부터 3일간 후쿠야마시 방문단 450명이 포항을 방문하여 30주년을 기념하는 진주혼식을 갖는다. 그리고 국악공연과 사물놀이 관람은 물론 한국전통문화도 체험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포항시 방문단 300명이 후쿠야마시 장미축제에 다녀왔다.

포항시는 앞으로 해외 자매 및 우호 도시는 물론 우호 교류의향서 체결도시들을 대상으로 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하는 한편, 이들 도시를 방문하는 등 국제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포항의 자매 및 우호 도시들

포항은 현재 국내 5개 도시, 해외 4개 도시 등 총 9개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서울 노원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수원시가 포항의 새로운 자매도시가 되었다.

아울러 미국 롱비치시와 피츠버그시, 중국 훈춘시 등 해외 자매도시들과는 그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공고한 새로운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그리고 민선 4기는 영일만항 포토세일, 경제 및 자원 협력 등 실질적 국제교류를 위해 환동해경제권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과 우호도시 및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8월에는 4개국 13개 도시가 참가하는 '환동해거점도시회의'에 가입했고, 지난해 9월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서밋회의'에 가입하는 등 국제교류의 지평을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다.

자매도시

- 미국 롱비치(LONG BEACH)시
캘리포니아주 LA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항과 1985년 7월 12일에 자매결연했다. 태평양 연안 최고 입·출항지이자 항공기 제작으로 유명한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롱비치 국제공항 및 해군 조선소가 있는 국제적 항만·공업도시로 인구는 46만1천명, 면적은 130km²이다.
- 미국 피츠버그(PITTSBURG)시
캘리포니아주 SF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항과 1987년 7월 24일에 자매결연했다. 철강·화학·제지·유리업이 주산업인 철강공업 도시이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통한 창조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인구는 7만 7천명, 면적은 30km²이다.
- 중국 훈춘시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하며 러시아, 북한과 인접한 도시로 포항과 1995년 5월 15일에 자매결연했다. UN 개발계획 및 중국정부의 변방개발도시로 지정되어 풍부한 지하자원 등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인구는 25만 명, 면적은 5,142km²이다.



- ① 장미축제에 운집한 후쿠야마 시민들
- ② 원동해거점도시회의 기입
- ③ 중국 무역박람회에 참석한 포항 홍보부스
- ④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 기타 국내 도시들

지난 1997년 11월 4일 자매결연한 전남 광양시는 POSCO 광양제철소가 있는 등 포항과 산업 및 입지 여건이 비슷한 도시이며, 지난 2003년 6월 18일 자매결연한 전북 부안군은 새만금 물류기지화로 첨단산업 유치와 함께 관광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7월 19일에는 서울 노원구, 지난해 5월 20일에는 대구 수성구, 올해 3월 9일에는 경기 수원시와 각각 자매결연했다.

우호도시 및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도시

• 중국 장가항시

2007년 8월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중국 장가항시는 강소성 동남부 장강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로 철강·섬유·유화·화공·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해 있다. 특히 세계 50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이 이곳에 입주해 있고, POSCO가 장가항 포항불소강 유한공사를 두고 있는 등 포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 중국 당산시

2008년 7월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당산시는 허북성 동부에 접한 도시로 대부두, 대공업구, 대강철소, 물류기지, 대전력, 대규모화학공업 등 국가프로젝트가 추진된 도시이다. 두개의 항구를 끼고 있고, 철강공업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포항과 도시환경이 비슷한 도시이다.

• 중국 일조시

2008년 9월 25일 우호도시 교류협력을 체결한 일조시는 산둥성 남부에 위치한 중국 최대 녹차 생산기지이다. 최근에는 철강산업을 유치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27선석 규모의 항만은 연간 1억1천만 톤의 물동량이 물리는 중국 9대 항구이며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다.

• 중국 대련시

2008년 9월 29일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련시는 중국 요녕성 남단에 위치하며, 일본·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중국 항만 물동량 대다수가 이곳을 통해 나가고 있는 등 중국 3대 항구도시이다. 최근에는 하이테크 산업지로 부각되고 있어, 포항으로서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도시이다.

• 러시아 연해주 정부 및 블라디보스토크시



2008년 10월 9일 연해주 정부와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우호교류도시 관계의향서를 체결했다. 영일만항과 연해주항만간의 교통·물류분야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해주는 기계 및 금속공업이 발달했으며, 극동지역 최대 항만이자 자유무역항인 블라디보스토크항만이 있다.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

2009년 3월 3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비슈케크시는 규석·우라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포항의 철강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제철기술 등 첨단과학 인프라를 제공하면 상생이 기대되는 도시이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은 규석·우라늄 외에도 가스·원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 독일 드레스덴시

2009년 4월 17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드레스덴시는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소인 막스프랑크연구소 3개 분원이 자리해 독일에서도 가장 우수한 첨단과학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다. 이 연구소 분원 유치에 노력하는 포항으로서도 교류가 절실한 도시이지만 드레스덴시 또한 첨단과학 인프라를 갖춘 포항과의 교류·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에는 뉴질랜드 노스쇼어시에서 자매도시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차 포항을 방문했으며, 일본 서해 최대 항만도시인 니가타시와는 항만 물류는 물론 문화·체육 등 광범위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본 시모노세키항과는 교류·협력을 통한 물

류루트 개발과 물류창출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MOU체결로 지속적인 교류를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상태이다.

실질적 구체적 국제교류·협력으로 나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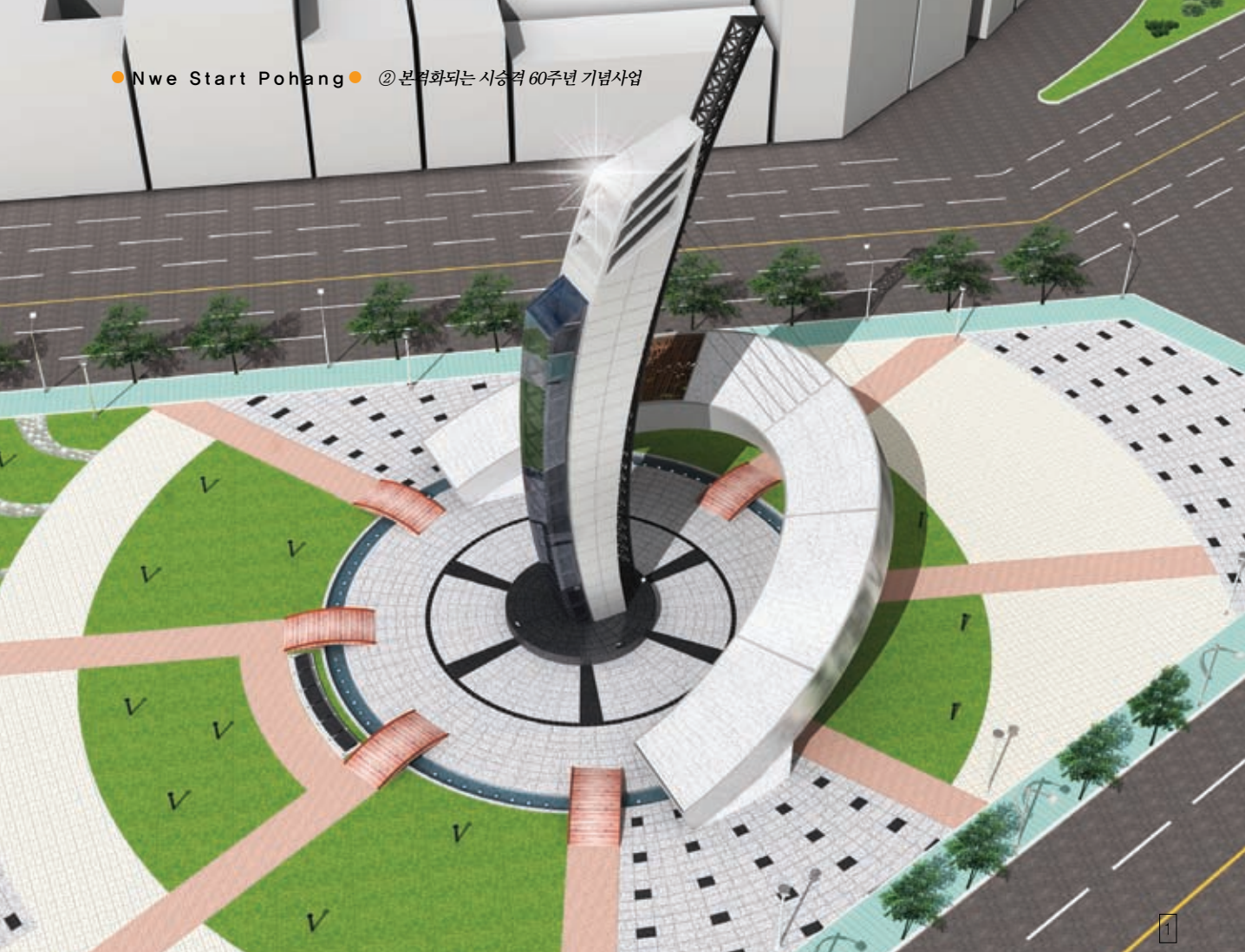
오늘날 선진도시들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 등의 형식과 방법을 지양하고,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제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고 일상화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 구체적 교류·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포항 역시 지난해 9월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 서밋회의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회의는 일본·중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태국 등 12개국 28개 도시가 정식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회의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07년 8월에는 4개국 13개 도시가 참가하는 '원동해거점도시회의'에 가입하는 등 포항도 영일만항 개항을 앞두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사실 민선 4기 포항시정은 취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국제 교류 확대와 자매도시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숭한 노력을 전개했다. 앞으로 관련 도시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영일만항 개항과 더불어 더 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를 가져본다.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포항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과 기념행사들이 본격화되는 달이다. '2009 포항시민의 날'을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성공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포항시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포항의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과 행사들이 줄을 잇는다. 아울러 포항시민의 날을 앞둔 5월 하순에도 각종 기념행사들이 다채롭게 전개된다. '열린포항'은 시민들이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과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행사들을 신는다.

2009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이번 포항시민의 날은 어느 때와는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의 날은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그쳤지만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포항이 세계일류도시로 향하는 전환기를 맞아 시민화합과 지역통합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 오는 6월 1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해도시민공원(가칭) 일원에서 2만여 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60주년 기념조형물 점등식 등이 열리고, 축하공연에서는 포항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의 공연에 이어 슈퍼모델 패션쇼와 초청 가수 공연(5~6명), 마지막으로 화려한 축하불꽃쇼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과 타임캡슐 수장품 수집(부스설치), 그리고 읍·면·동별 먹거리 장터 등의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시승격 6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건립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이 해도근린공원 내에 설치된다. 이번 조형물은 철강산업·문화관광·첨단과학도시의 미래를 향한 글로벌 포항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도약하는 포항의 의미와 함께 해양문화 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형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형물은 높이 36.5m 규모로 4,900㎡의 주변광장도 함께 조성된다. 6월 12일 시민의 날 행사 시 제막식을 가진다. 이번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물론 문화도시 포항의 위상 제고 및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 구(9)경 선정

포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명소를 대상으로 '포항 9경'을 선정하여 전국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포항 9경'은 6월 12일 시민의 날에 이를 공표한다. 이번 선정을 위해 시민·외지관광객·여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했으며, 선정된 '포항 9경'은 앞으로 화보로 제작하여 포항의 국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9개 읍면동의 날 운영

시승격 60주년을 자축하고 각 읍면동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화합과 통합은 물론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60주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 29개 읍면동의 날을 운영한다. '읍면동의 날'은 시민의 날 이후부터 불빛축제 전일까지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중앙상가 특설무대에서 각 읍면동별 하루씩 운영한다. 행사는 각 읍면동의 날 선포식에 이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축하공연과 특산물 홍보부스 등을 운영한다. 한편, 읍면동의 날 행사가 없는 날을 택해 지역 우수단체 및 공연팀을 초청한 특별공연도 계획되고 있다.

2009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

이번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 개최는 영일만을 세계에 알리고 포항을 한국 해양스포츠의 요람이자 해양관광레포츠 전진기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동해안시대를 열어가길 미래 고부가가치인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는



① 글로벌 포항의 염원을 담은 시승격 6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이 해도근린공원 내에 설치된다.

② 포항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염원하는 축하행사가 마련된다.



3

오는 6월 13~14일 양일간 영일만과 북부해수욕장에서 선수 500명, 동호인가족 1,000명 등 모두 1,500여 명이 참가하고, MBC NET와 MBC ESPN이 중계방송에 나선다. 특히 국제대회 유치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브랜드 상승이 기대되고, 스틸 넘치는 고품격 해양스포츠 개최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흥구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

이번 기념문학제는 포항에서 '은둔의 사색가'로 살다 생애를 마감한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 한흥구의 풍요롭고 참다운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기념문학제를 통해 '문화도시 포항' 및 수필문학의 배경이 된 '자연도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흥구의 참다운 문학세계 재조명으로 한국 근대문학사 재정립은 물론 시승격 60주년에 따른 포항의 문학적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기념문학제 내용은 문화마당(19쪽) 참조]

제3회 포은문화축제

포은문화축제는 고려시대 충신이자 학자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 포항 오천임을 각인시키고, 포은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한편, 이를 51만 포항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계승시키기 위한 축제로 오는 6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천읍 일원 및 오천중·고등학교에서 열린다.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경로잔치	다과 및 공연(효부상, 장수상 시상)
청소년어울림마당	학원연합회 태권도, 에어로빅, 벨리댄스 공연 청소년 가수 축하공연 등
시가행진	(구)국민은행~본 행사장
개막식	포은행렬입장, 안동하회별신굿 공연 등
공연	포은가요제, 초청가수 공연 및 풍물패 공연
시상 및 폐회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포은가요제 시상



4

2009 아시아 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

오는 6월 19일 오후 6시부터 포항종합운동장에서 3시간 30분간 화려하게 펼쳐지는 아시아 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최지 포항의 주요 명소와 관광지가 전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방송됨으로써 지역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벤트로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치한 행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마당(20쪽) 참조]

⑤ 포은 정몽주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포은 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④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가 2년 연속 포항에서 개최됐다.

단오절민속축제

포항문화원이 주관하는 단오절민속축제는 잊혀져가는 전통세시풍속을 되살려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고유문화를 보존·전승하면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이다. 단오절인 오는 5월 28일 환호해맞이공원에서 그네뛰기, 옷놀이, 투호놀이, 노래자랑 등의 경기 및 경연행사를 벌이고, 부대행사로 단오빔, 풍물패 공연, 전통민속공연, 월월이정청 등이 펼쳐진다.

시승격 60주년 대북 제작·설치

포항시의 주요 행사나 축제 시 시작과 끝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할 대북이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오는 5월 30일 시청사 입구에 설치된다. 대북은 포항문화원이 150cm, 180cm 규모로 제작하며 태극무늬와 전통문양으로 장식되어 시청사 내방객 및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09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글로벌 포항'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는 물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퍼레이드를 전개하여 '민족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세계에 홍보했는가 하면, 이번 대회를 환동해권의 국제적 해양스포츠 이벤트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MBC를 통해 중계된 이번 대회는 포항~울릉도~독도를 회항하는 요트대회로 10개국 40개팀 260여 명이 참여해 일주일간 열전을 벌였다.

옛날

옛날 연일 인주리 조박골에 마음씨 착한 부자 할아버지가 곧 날아갈 것만 같은 아름다운 기와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집 앞으로 물오리가 파닥이는 적계못이 흰히 내려다보이고, 대문을 나설라 치면 가슴 가득히 안겨드는 어머니들이 철철이 곡식과 채소를 길러 주었어요.

곳간에는 가득 가득 곡식이 쌓여 있었어요.

부자 할아버지는 어머니나 적계못 만큼이나 마음도 넓어서 찾아오는 길손을 그냥 보내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혹시 밥을 굶을세라 대문간에다 커다란 쌀독을 묻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먹을 만큼씩 가져가게 했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채에는 늘 길손으로 떠들썩했어요. 할아버지는 길손으로 가득한 사랑채를 보면서 마치 곳간에 곡식이 든 것처럼 마냥 좋아했지요.

할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를 보내게 되었어요.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며느리 복이 참 없었던가 봐요.

불통불통 첫째는 덩치만 커다랐어요.

“좋아, 좋아. 딱이야. 튼실한 게 맘머느릿감이야.”

할아버지는 첫째에게 곳간 열쇠를 맡겼어요.

빼죽빼죽 둘째는 빠치기를 잘했어요.

“좋아, 좋아. 여자는 말수가 적어야지 손님 많은 우리 집에는 안성맞춤이야.”

할아버지는 둘째에게 손님 모시는 일을 맡겼어요.

간들간들 셋째는 몸치장만 해댔어요.

“좋아, 좋아. 가지런하고 예쁜 손 음식을 잘 하겠어.”

할아버지는 셋째에게 부엌살림을 맡겼어요.

할아버지는 허허 하하 며느리들이 그저 예쁘기만 했답니다.



부자 바위

●●● 연일읍 인주리에는 적계못(조박지)이 있습니다. ●●●

|글| 김일광 · 동화작가

|그림| 최수정

며느리들이 부잣집 살림을 꾸려 나갔어요. 곳간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길손이 오면 사랑채로 모시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했어요. 갖 시집 와서는 어른이 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해, 두해, 세 해가 지나면서 며느리들은 슬슬 본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어요. 곳간에 있는 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기보다 그걸 모으면 해마다 땅을 더 많이 살 것 같았어요. 점점 더 부자가 되면 하인과 일꾼을 더 많이 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둘째가 빠르똥해서는 종알종알 거렸어요.

“내가 뭐야. 본적도 없는 나그네들에게 인사나 하고 빨래나 하고 이거 말이 안돼. 부잣집 며느리가 이게 뭐야.”

단단히 토라진 둘째는 손님이 와도 본체만체 했답니다.

셋째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

았어요. 얼굴과 손을 가꾸느라 부엌살림은 아예 뒷전이였어요.

“헛! 내가 뭐 부엌데기야? 제발 저놈의 손놈들이 없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때 마침 한 스님이 시주를 왔어요. 첫째가 바가지에 담아온 쌀을 바람에 쏟아 부으며 투덜댔어요.

“아유 정말, 내가 못살아 이웃에는 가난한 사람들 손 벌리고, 사랑채엔 배고픈 길손이 북적이고, 이제는 절간 사는 중까지…….”

스님은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맏며느리의 말을 받았어요.

“보살님! 길손과 이웃이 귀찮은가 보구려. 길손과 이웃을 막는 비방이 있긴 한데.”

언제 그 말을 들었는지 둘째와 셋째가 바가지에 쌀을 듬뿍, 듬뿍 퍼들고 쫓아 나왔어요.

“아유, 스님 그 비방이 무엇인지요.”

말투도 나긋나긋, 얼굴엔 방긋방긋 웃음이 흘렀어요.

스님은 며느리들을 가만히 내려 보며 좀 뜬 입을 다물게 했어요.

“저기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치워버리세요. 그러면 귀찮게 하는 길손도 들지 않을 것이고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도 없을 것이요.”

어려운 방법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돈 드는 일도 아니었답니다. 세 며느리는 지체하지 않고 종들을 불러 모아서 바위를 밀었어요. 몇 번 움짚움짚 밀치자 바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둥글둥글 굴러서 적계못에 풍덩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무언가 푸드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둘기 두 마리가 바위를 따라서 날아오르더니 바위가 빠진 못 위를 빙빙 돌았어요. 일렁이던 물결이 잠잠해지자 비둘기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부잣집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식구마다 아프기 시작했어요.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살림이 점점 기울자 그렇게 찾아오던 길손들의 발길이 푹 끊어졌어요. 물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곡식도 없어졌지요.

세 며느리의 소원이 고스란히 이루어진 셈이지요.

그 때 굴러 내려간 부자 바위는 요즘도 못물이 줄어들면 아슴아슴 머리를 내보인답니다.

탄생 100주년 한흑구는 누구인가



글쓴이 이대환

소설가. 1958년 포항출생.
중앙대 문예창작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작가수업을 하였다. 대학을 다니던 1980년
PEN클럽 한국본부가 주관한 장편소설
현상경모에 당선되었다. 귀향한 뒤 1989년
(현대문학) 지령 4백호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하였다.
민족문학작가회의 경복지부장을 역임하였고,
계간 <아시아> 지의 발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문예아카데미 원장으로 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 1997년
서라벌문학상을, 1980년 제1회 허균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장편소설 『새벽, 동녘 너,』
『겨울의 집』, 『붉은 고래』, 소설집 『조그만 깃발
하나』, 등이 있다.

한흑구

(韓黑鷗)는 누구인가? 오십대의 한국인과 포항시
민은 한흑구에 대해 수필 '보리'를 쓴 수필가쯤으로
아슬아슬하게 기억할 것이다. 그들의 중학교
국어책에 '보리'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보경사

입구 한 귀퉁이에 세워진 그의 문학비에 새긴 작품도 '보리'다.
그러나 한흑구라는 문학인을 '수필'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은 후학들의 무관심
과 무지에서 비롯되어 잘못 굳어진 고정관념의 일종으로, 이는 한흑구와 그의 문학에
대한 엄청난 결례이기도 하다.

한흑구 탄생 100주년.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지금부터 후학들이 말아야 할 책무가 있
다. 한흑구의 문학적 전모(全貌)를 제대로 세상에 알려 한국근대문학 연구자들이 그의
문학세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하고, 한국근대문학사에서 그에게 합당한 위치를 매
기게 하고, 한흑구의 인간과 문학에 걸맞은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전개
하는 것이다.

본명이 세광(世光)인 한흑구는 1909년 6월 19일(음력)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성장
하고 1928년 서울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도미(渡美), 시카고 노스 파크
대학과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6년째 공부하는 중에 모친 위독으로 귀국한 뒤 평
양에 정주하여 소설가 전영택과 함께 《대평양(大平壤)》을 창간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한흑구는 이미 《동광》을 비롯한 몇몇 문예지에 여러 편의 시, 단편소설, 평론을
발표한 기성 작가였다. 아직 수필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미국문학의 영향을 받아
국내 작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장르의 경계를 초월한 작가로 출발하였다.

한흑구는 미국문학을 조선 문단에 알리는 번역에도 활발하였다. 서양문학이 한국근대
문학에 이입된 역사를 집대성하는 연구에 학문적 생애를 걸었던 영문학자 김병철의
역저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에 따르면, 1930년대 조선 문단에 한글로 소개된 미국
시(詩) 총 62편 중 18편이 한흑구의 번역이었다.

1939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서른 살의 한흑구는 '홍사단 사건'으로 1년간 옥고를
겪는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은 더없이 가혹해진다.
조선을 전시동원체제로 속박한 일제는 창씨개명을 강요하면서 조선 문학인들에게
'문학작품으로 일본과 천황에 부역하라'는 압박과 회유를 병행한다.

그리하여 위로는 춘원 이광수부터 아래로는 미당 서정주까지, 그 시대에 엔간히 문명
(文名)을 알린 수많은 조선 문학인들이 정신적 변절이나 절망적 체념 속에서 '조선 청



년들의 전쟁 참여는 천황을 위한 황국신민의 영광스런 길'이라고 찬양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뒷날에 '친일문학'으로 명명되었다.

일제는 1930년대 조선 문단에서 시, 소설, 평론, 번역으로 문명을 날리고 민족운동으로
1년간 감옥을 살기도 한 한흑구에게 당연히 '친일 부역'을 강요하고 회유하였다. 그러
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 친일문학의 실체를 낱알이 밝혀낸 문학
평론가 임종국은 그러한 한흑구에게 "단 한편의 친일문장도 쓰지 않은 영광된 작가"라
는 헌사를 바쳤다. 내가 보기엔, 한흑구의 비명(碑銘)으로 쓰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왜 오늘의 한국인과 포항시민은 한흑구를 '보리'의 수필가쯤으로만 아슬아슬
하게 기억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일찍부터 장르를 뛰어넘은 한흑구의 젊은 작품들
이 여태까지 몇몇 도서관의 케케묵은 문예지 속에 박재 상태로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연이 있어 보인다.

1930년대 조선 문단은 일본 동경 유학파들이 경성(서울)을 중심으로 문학적 주류를 형
성하고 있었지만,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청년작가 한흑구는 고향인 평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또한 그는 문학정신이 늘 뻗뻗하여, 1931년 그의 나이 22세에
시카고에서 쓴 '젊은 날의 시'가 <그대여! 젊은 날의 시를/빨갭게 써놓으라/그것이 다
못 속임없는/그대의 시인 것을/쓰고 고치고 고치고 모아서/그대들은 안타까이 돈을 만
들고 있나니/그대들은 이미 세상을 속이고/그대들의 맘을 굽히지 않는나!>라고 매섭게
다짐했듯이, 그것은 그의 붓끝의 일말도 '친일 부역' 쪽으로 휘지 않게 해주는 동시에
그의 문학하는 삶을 이른바 입신양명에 무심한 쪽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대평양》의
창간을 주도한 유망 작가가 어찌 시집, 소설집, 평론집, 번역시집의 어느 한 권도 발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조국이 해방을 맞자 한흑구는 고당 조만식의 권유에 따라 소련과 김일성의 지배에 들
어간 평양을 버리고 서울로 망명도생한다. 이때 서울은 그에게 유복한 생활을 보장한
다. 미군정(美軍政)이 그의 지식과 영어실력을 고용한 것이다. 서울에 3년 남짓 머문 동
안 그는 가난한 문학 후배들에게 술을 대는 후견인 역할도 톡톡히 했다. 1971년 한흑구
생애의 첫 작품집인 『동해산문』의 발간을 주선한 시인 서정주도 "그때 흑구형에게 신
세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한흑구가 유복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포항으로 내려온 것은 1948년. 이때부터 1979
년 70세를 일기로 이승을 떠나는 날까지 그는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나무, 낙엽,
흙, 보리, 바다, 파도, 그리고 자신의 필명인 갈매기 같은 자연과 대화를 나눠서 시적(詩



1 1979년 향년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흑구 선생의 묘지는 영일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흥해를 죽전2리 언저리에 마련됐다.

2 청하골 보경사 인근 김섬 숲속에 세워진 한흑구 선생 문학비 앞면에는 '보리'의 마지막 문장인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가 새겨져있다.

3 일차게 영근 보리처럼 오늘날 제법 풍성한 '포항문학'은 한흑구 선생이 뿌린 '문학의 밑거름'이 성장한 것이라.



4

④ 수필집 '보리'의 영감이 된 푸르른 바다와 보리가 조화를 이루며 넘실대는 대보면 구안리 일대.

1931년 (동광) 28호에 시인으로 데뷔하는 한훤구가 시카고에서 쓴 '밤 전차 안에서'라는 시를 함께 감상해 보자. 조국을 잃어 (송곳 하나 꽃을 명도 없는) 식민지 지식청년의 쓰러린 비애와 고통이 사무쳐올 것이다.

자정이 넘어서
홀스데드 전차를 봤네.
차 안에는
일터로부터 돌아오는 노동자들,
꿈동이, 파란(波蘭) 여자, 애란(愛蘭) 색시.

노예에서 해방된 꿈동이
오늘은 다시 돈의 철쇄(鐵鎖)에.....
러시아서 해방된 파란 여자
오늘은 다시 돈의 속박에.....
녹색지마의 애란 색시
오늘도 그 지마 녹색.....

모두 다 하품하며
끄덕끄덕 졸고 앉았네.
한두 번 전차가 멎더니
그들도 모두 내리었네.
그중에 나 혼자 남아
커브를 도는 차바퀴 소리를 듣네.

쓸쓸히 방문을 닫고
돌아와 자리에 눕네.

그들이 내 눈에 쓰림을 주는데
내 몸은 누가 돌보나!
무엇 무엇해도.....
그들은 명절이 있고,
그들은 설 곳이 있고.....

나는 송곳 하나 꽃을 땅도
아! 나는 송곳 하나 꽃을 땅도.....
(1931, 4, 3, 시카고에서)

的) 수필을 쓰는 가운데 하염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사색과 은둔의 길을 따라 생을 완주했다. 그의 생애에 남긴 작품집은 포항의 후학 손춘익(아동문학가)의 권유에 떠밀려 발간한 『동해산문』과 『인생산문』이라는 수필집 두 권이 전부이다. 포항에서 살아간 인생의 후반기를 한훤구는 포항수산대학(포항대학 전신)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학하는 후배들과 '흐름회'를 조직하여 백일장이나 강연회를 개최했다. 문학적으로 척박한 포항에 '문학과 지성의 밀알'을 심었던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생에서 처음 문학의 이름으로 상을 받은 것도 '흐름회' 백일장이었다. 실제로 오늘의 제법 풍성한 '포항문학'은 한훤구의 밀알이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훤구 탄생 100주년을 맞은 2009년, 포항에 사는 후학들이 '한훤구탄생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대환)를 조직하였다.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의 이대환, 이재섭, 임재현, 임해도, 포항문인협회의 김만수, 김일광, 장태원, 차영호, 최부식, 하재영 등 십여 명으로 출범한 이 위원회의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한훤구의 시, 소설, 평론, 수필을 망라한 『탄생100주년기념 한훤구문학선집』을 발간하고 전국의 한국근대문학 연구자들과 주요 문학인들에게 기증하여 '한훤구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6월 19일 포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인 이 선집에는 시 40편, 단편소설 14편, 장편소설의 일부, 가려 뽑은 수필 27편과 평론 9편이 수록된다. 1920년대 대공황 시대의 미국 유학생활을 바탕으로 당시 미국사회의 편린과 인종차별, 고학 생활의 애환, 조국 잃은 식민지 지식청년의 우수와 고뇌 등을 담은 한훤구의 시와 소설은 1930년대 조선 문단에서도 단연 이채로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읽어도 당대에 대한 실감을 제공해 준다.

한훤구기념사업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한훤구 기념사업을 펼친다. 첫날은 '한훤구의 문학세계'라는 문학강연(강사는 민충환 부천대 교수, 『한훤구문학선집』의 편저자), 다음날은 출판기념회, 그 다음날은 한훤구 문학기행에 이어서 '한훤구 문학세계 연구'라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물론 이 행사로서 한훤구 기념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옳다. 앞으로 한훤구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기획을 마련하고, 그의 문학전집을 발간하고, 그의 삶과 문학세계에 누를 끼치지 않을 문학상도 제정해야 한다. 이것은 포항을 사랑하고 포항에 문학과 지성의 밀알을 심은 '은둔과 사색의 선각자'에 대한 포항시민의 기본 예의라고 할 수 있다.



포은 정몽주의 고향

오천과 유허비

포은은

영일정씨(迎日鄭氏) 시조인 추밀원 지주사(樞密院知奏事) 형양공 습명 선생의 11세손이며, 고려 말엽 충숙왕 복위 6년(1337) 12월에 포항시 오천읍 문충리에서 탄생했다. 시호는 '문충'이다.

지금도 문충리에는 포은의 생가터를 비롯해 어렸을 때 말을 탔던 승마석 등이 전해오고 있다.

현재의 '문충(文忠)'이라는 지명도 조선조 3대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이 고려왕조에 대한 포은의 충정과 절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내린 시호 '문충'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구정리에는 포은의 유허비가 있다. 이 유허비는 만고의 충신인 포은의 충절을 후세에 길이 계승하고자 이 지방 유생들이 뜻을 모아 포은의 생장지(生長地)이고, 고택의 유허지(遺墟止)인 이곳에 인조 12년(1634)에 건립하였다.

유허비각은 현종 6년(1665), 숙종 25년(1699), 순조 31년(1831), 건국 7년(1954), 건국 40년(1987) 등 5차례에 걸쳐 중건 개수하였으며, 당초에는 오천서원과 유허비각이 나란히 있었으나 서원은 원동으로 이전되고 현재는 비각만 남아 있고, 비석의 높이는 1.52m, 폭 0.5m이고,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오천지역 주민들은 포은이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詩) '저성역야우(諸城驛夜雨)'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한시와 '문충동가(文忠洞歌)'를 보존 전시하는 등 포은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포은문화축제'를 열어 지역이 배출한 충절의 표상 포은의 절개와 정신을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되새기고 있다.



2

① 포은 정몽주
② 포은 유허비각



[연]



[친]

» 김현근의 1인극, 호랑이 이야기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5월 28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 람 료 : 전석(13,000원)/당일현장(15,000원)

» 연극, 가거라 삼팔선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6월 3일~4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시립합창단, 실개천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6월 18일 19:30
- 장 소 : 중앙상가 실개천

» 성인뮤지컬, 싱글즈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6월 19일~20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30,000원) S석(22,000원)
- 관람연령 : 청소년 이상 성인

» 차향이 있는 창작무용 -접시꽃 당신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6월 24일 11: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 포항시향 95회 정기연주회 -뜨거운 북풍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6월 26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한학구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

시승격 60주년인 올해는 마침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한학구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 근현대문학에서 중요한 작가였지만 일찍이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포항으로 내려와 '은둔의 사색가'로 살다 생애를 마감한 한학구의 참다운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한학구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가 오는 6월 18~20일 3일간 보경사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문학제는 한학구의 전모를 세상에 다시 알리고 재조명하여 한국 근현대문학사의 지워진 한 부분을 되살려내는 것과 동시에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한 포항시의 문화적 긍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뜻 깊은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학구 문학세계 문학강연
 - 강 사 : 부천대 민중환 교수
 - 일시장소 : 6월 18일 19:00부터 시청문화복지동
- [한학구 문학선집] 출판기념회
 - 공동주최 : 포항사회연구소/포항문학
 - 일시장소 : 6월 19일 18:00부터 캐슬웨딩 7층
- 한학구 문학기행
 - 일시장소 : 6월 20일 14:00부터 보경사 문학비 일대
- 한학구 문학세계 심포지엄
 - 일시장소 : 6월 20일 17:00부터 보경사
 - 사 회 자 : 이대환
 - 발 제 자 : 유영자(시), 곽원석(소설), 이관희(수필)

» 이팝작은갤러리로 서양화 구경 오세요!

이색 전시공간인 '이팝작은갤러리' (흥해중학교 앞)는 6월 3일까지 '포항청년작가회' 서양화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포항청년작가회원 20명의 실험적이며, 개성 강한 서양화 40여점이 전시되어 서양화 속으로 폭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포항청년작가회는 포항지역 출신이나 연고의 미술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한국화와 서양화 중심의 작품 활동을 하는 30~40대 미술 동호회이다.

2009 아시아 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



2007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 1위 이현주



2006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 2위 차서린

포항시와 SBS가 공동 주최하는 '2009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6월 19일 오후 6시부터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업그레이드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정상급 모델 선발대회 개최지를 중국, 일본, 태국, 미주 등 환태평양권에 방송하여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포항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POSCO 등 시내 관광명소에서 참가 슈퍼모델 32명이 프로필 촬영에 나섰다.

- 행사일시 : 6월 19일 (금) 18:00~21:30
- 장 소 : 포항종합운동장
- 출 연 진 : 류시원(사회), 슈퍼주니어, 손담비, 소녀시대, 장윤정, 박현빈 등
- 입장권 제작·배부
 - 제 작 : 필드(좌석)용 10,000매, 스탠드용 40,000매 예정
 - ※ 필드(좌석)용 입장권 미소지자는 필드에 입장불가
 - 배 부 : SBS방송사, 포항시(구청, 읍면동 포함)
 - 배부방법 : 선착순(스탠드) 및 인터넷 신청 추천(필드)
 - 배부홍보 : 포항시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등
- 입장시간 : 6. 19(금) 13:00~17:30까지(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입장이후 1부 행사 생방송 종료 시까지 장내 이동불가

일본 언론과 여행사들, 포항의 매력에 반했다



최근 들어 일본 언론들이 관광도시 포항의 매력을 특집기사로 보도하는가 하면 여행사들이 포항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 일본인 관광객은 물론 기업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지역 70만부 발행을 자랑하는 주국(中國)신문사 카와모토 사장은 4월 23일 포항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룡포 일본인 가옥촌과 호미곶 등은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신문사 차원에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포스텍 지능로봇연구소 등 포항의 첨단과학 인프라를 둘러보고, 부품소재전용단지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며 “이러한 첨단과학 인프라와 산업단지는 일본기업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만큼 이를 일본에 적극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신문사 이토 마사유키 기사는 4월 19일

부터 4일간 구룡포 일본인 가옥촌과 호미곶, 죽도시장, 실개천 등을 취재했다. 이에 앞서 4월 15일부터 3일간 일본 동경 지하철을 중심으로 발행되는 동경매트로신문 마에가와 켄지 대표도 포항을 집중 취재하면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포스코 홍보관을 시작으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를 취재했으며, 현지인 서상호(89) 씨와 인터뷰도 가졌다. 이어 16일에는 내연산 보경사와 대통령 고향 덕실마을, 영일만항을 취재한 뒤 생명공학연구소, 지능로봇연구소, 포스텍, 테크노파크 등을, 다음날은 호미곶 일출도 취재했다. 한편, 포항시는 4월 21일 부산인바운드여행사협의회와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일본인 관광객 유치가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는 국내최고 인바운드여행업체와 3월에는 서울동방관광과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여기에 5월 4일 홍보대사 위촉차 포항시청을 방문한 일본 JR큐슈여행사본부 마치 다카시 본부장도 “홍보만 잘 된다면 관광도시 포항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일본인 관광객들이 포항으로 많이 오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시정으로 기업경쟁력 약화요인 해소한다



포항시가 트레일러 중량초과 문제로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공단업체들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 문제가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외국과 국내 공단도시의 사례를 집중분석,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승호 시장은 4월 14일 포항 철강공단 내 동국 S&C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레일러 수송화물이 법 규정보다 무겁다는 이유 때문에 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애로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창원 등 타 공단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또 “3천 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이 가운데 94%를 수출하고 있는 우수한 지역기업이 불합리한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자체가 앞장서서 제도를 만들고, 어려움을 해소시켜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정학근 사장은 “트레일러 축중량이 12톤을 넘으면 안 된다는 관련 법 규정 때문에 자사 수송차량이 철강공단에서 인근 포항신항까지 3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데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운행하도록 제약을 받고 있다”며 “항만에 수출선박이 들어와 있는 데도 이 규정 적용을 받아 선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 10월 중 기공식 가진다

포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4월 20일 동빈내항 복원사업 세부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박승호 시장과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이날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역할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적인 이행약속(MOA)을 체결했다. MOA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와는 달리 법적 제약이 따르는 협정서로 양측이 확실한 사업파트너로 묶여졌다는 것을 뜻한다. 양측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도록 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건물 등 물건보상과 영업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이주대책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주대상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택지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구미와 경험 MOU, 영일만항 물동량 탄력



포항시와 구미시가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오는 8월 개항하는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포항시와 구미시는 5월 8일 구미시청에서 구미지역 수출입 업체의 해상물동량을 영일만항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4월 8일 경북도내 21개 시·군 단체장들이 경산에서 채택한 ‘영일만항 활성화 결의문’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북지역 자치단체들의 협조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간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물론 국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부품소재단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양도시가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상생의 협력을 선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독일 드레스덴시와 교류의향서 체결

세계적 과학연구소인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가 포항시와 독일 과학도시인 드레스덴시를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주었다. 박승호 포항시장과 더크 힐버트 드레스덴시 부시장은 4월 17일 포항시청에서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드레스덴시는 인구 50만의 작센주 주도로 막스프랑크연구소 3개 분원을 포함해 11개의 세계적인 연구소와 10개 대학이 있는 세계적인 과학도시이다. 포항시는 막스프랑크연구소 한국분원이 포항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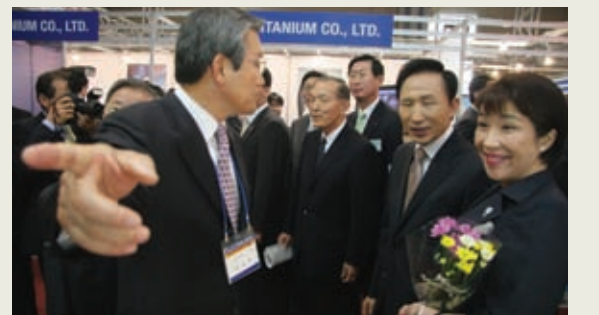
포항 배경 ‘2009외인구단’ 이 떴다

MBC는 포항을 주요 촬영지로 하는 이현세 원작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을 ‘2009외인구단’이라는 제목으로 5월 2일부터 주말드라마로 방영하고 있다. 그린시티픽처스와 월비컴이 공동 제작한 2009외인구단은 20부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오는 6월에 마칠 예정이다. 특히 윤태영(오해성), 김민정(최엄지), 박성민(마동탁) 등 정상급 배우가 출연하는 등 150여 명의 제작진이 참여하는 작품으로 MBC가 야심차게 내놓은 주말 기획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구룡포 적산가옥과 구룡포항에서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어 고향을 찾는 장면, 죽도시장과 회센터, 과메기거리, 활어워판장 등을 촬영했다.

청년실업해소 위해 행정인턴십 확대·운영

포항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제2기 행정인턴십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인턴 41명을 추가 채용했다. 이로써 포항시에 현재 모두 85명의 행정인턴이 근무하고 있다. 29세 이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인턴은 주5일 근무에 월 100만원 가량의 급여가 지급되며 근무조건은 공무원에 준한다. 5월 4일부터 8일까지 행정인턴 응모를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4일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18일부터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 배치됐다. 근무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국제부품소재전 포항 부스에 일본인 ‘복석’



‘2009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서 포항시 전시부스가 일본소재 부품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포항시는 4월 16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하루 동안 일본인 부품소재 관계자 30여명을 비롯해 국내외 산업관계자 등 50여건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특히 다케시 아카호리 일본 외무성 대양국 일한경제실장 등은 포항시 부스에 들러 부품소재전용단지 규모와 준공시기, 영일만항 개항시기, 일본기업들이 입주 시 혜택 등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제부품소재산업전을 순회하던 중 포항시 전시부스를 지키던 박 시장을 보고는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하는 일은 잘돼 가는 가요?”라며 고향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부품소재공단은 현재 영일만항 배후산

업단지에 조성 중이며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 유치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첫 삽'



포항시는 4월 23일 북구 흥해읍 신(新)포항역사 예정지에서 정중한 국토해양부장관,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박승호 포항시장, 도·시의원,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총사업비 2조 5,65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동해안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피츠버그 시장, 시승격 60년 축하 방문

포항의 자매도시인 미국 피츠버그시 낸시 페어런트 시장 일행이 4월 27일 시승격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포항을 방문했다. 낸시 시장은 이날 "시승격 60주년을 계기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포항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며 시승격 60주년을 축하했다. 이에 박승호 시장은 "포항은 영일만항 개항을 계기로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성장할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며, 낸시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포항시, 「구룡포에 살았다」 출판

포항시가 구룡포에 남아있는 일본인 가옥촌이 일본인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주요 테마라는 판단과 함께 역사를 되짚는 사료적 개념과 당시 생활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문화적 제고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고있는 책자 '구룡포에 살았다'를 출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판으로 출판된 이 책은 조중희, 권선희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며, 100여 년 전 일본 세토 내해 어부들의 구룡포 진출부터 패전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반도 동남쪽 포구 구룡포를 무대로 이루어졌던 어업과 역사적, 문화적 전반에 걸친 한일 양측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다.

▶▶▶ 기북면 성법마을, '범죄 없는 마을' 선정

포항시는 4월 24일 '2009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기북면 성법마을에서 윤정용 부시장, 최재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석검사, 청소년 담당 검사, 기관단체장 등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표석 제막식을 가졌다. 특히 범

죄 없는 마을 만들기에 공이 큰 이항우 성법마을 이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최영자 부녀회장이 경북지사·대구지방검찰청 공동 표창을 수상하고, 장재용 새마을지도자가 포항시장상을 받았다. 또한 경북도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공동명의 마을표창과 2,500만 원의 사업지원 증서도 받았다.

▶▶▶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 도시계획조례 결정

포항시가 지역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4월 30일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됐다. 이번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판매시설 바닥면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0㎡에서 1000㎡미만으로,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은 3000㎡이상에서 3000㎡미만으로 축소하는 등 이들 3개 지역에는 대규모 점포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 '대성황'



포항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포항향토청년회와 전국자전거축전기획단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포항경기 및 제13회 포항사랑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가 5월 2일 포항 종합운동장과 대잠사거리, 형산로타리 일원에서 전국자전거투어단, 포항시MTB동호회, 시민 등 2,5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U자형 전국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발맞추어 친환경녹색 대체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의 붐 조성을 위해 '제1회 전국자전거축전 포항경기'와 함께 개최됐다.

▶▶▶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경북도가 실시한 「200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포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는 세무행정 전반에 대해 7개 부문 2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포항시는 지방세 부과액 5,315억 원으로 2007년 대비 726억 원이 증가했으며, 징수액은 4,961억 원으로 710억 원이 증가되어 징수율이 93.3%로 향상됐다. 이 밖에도 부과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지난해 보다 21억 원 감소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난 4월 20일 개최한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30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를 열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9,410억 원보다 812억 원(8.63%) 증가한 1조 222억 원으로 편성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또, 포항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으며, 용흥4구역(용흥동 57-69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교통 및 경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채택했다.

▶▶▶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 채택

포항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용역결과 발표와 관련, 성명서를 내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긴급 전체의원 간담회에 이어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범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성명에서 의원들은 경북도에서 지난 4월 9일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새마을운동 모범마을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로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중차대하고도 역사적인 결정은 정확한 고증자료에 의거해야 함은 물론,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 기본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전격 발표한 것은 포항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로 지역 간 분열만을 초래했다고 반발했다.

▶▶▶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많은 관심과 배려 요청

포항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경제난 조기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4월 1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지역 새마을금고이사장 25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보육,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서민지원 대책과 최근 실직,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

다.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각종 건의 및 주문 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소관 부서에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시정질문, 조례안 발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사학재단이사장 초청 간담회 열어

포항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은 4월 8일 소회의실에서 포항 지역 사학재단이사장 11명을 초청,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일선에서 참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사학재단 이사장들을 위로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각종 건의 및 주문 사항을 정리하여 소관별로 관계 요리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 낸시 피츠버그시장 일행과 뜻 깊은 오찬



시승격 60주년을 축하하고 자매도시간 친선교류 확대를 위해 포항을 찾은 미국 피츠버그시 낸시 시장 일행이 4월 29일 흥해 한우프라자에서 "원더풀! 한우!"를 연발했다. 포항시의회가 마련한 이날 환영 오찬에는 피츠버그 시장 일행뿐만 아니라 포항거주 미국인들이 초청되어 오찬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먼 타국에서 피츠버그시장 일행을 반갑게 만난 그들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다. 이날 초청된 아이린 여사는 미국인들을 대표해 "포항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은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발전했다"며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영일만항 개항을 계기로 환동해 물류거점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포항자랑을 늘어냈다. 이에 낸시 시장은 "포항은 우수한 지식기반 인프라를 구축한 첨단산업단지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라며 뜻 깊은 만남을 주선해준 최영만 의장의 아이디어에 감탄을 연발하는 등 시중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한국 특유의 음식문화에 흠뻑 빠져들었다.

▶▶▶ 조에초시의회연맹 일행, 포항시의회 방문

포항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4월 22일 시의회에서 시승격 60주년을 축하하고 한일 의원 간 친선교류 확대 및 산업과학 시설과 영일만항을 견학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코바야시 쇼오고 일본 조에초시의회 연맹회장 일행 10명을 접견하고 양도시간 우호증진은 물론 물류협력과 정보공유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 뱃머리 문화콘텐츠센터 명칭 공모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하여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더욱 친근감을 주기 위한 뱃머리 문화콘텐츠센터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

- 응모자격 : 포항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명칭형태 : 가능한 6음절 이내 정도의 단어(한글 또는 영문)
- 응모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 접수기간 : 6월 15일까지

[문의 :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270-5233~6]

>>> 5월 포항시민 교양대학 강좌

- 일 시 : 5월 27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공연장
- 강 사 : 도종환 시인(문학박사)
- 주 제 : 시가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
- 대 상 : 포항시민 누구나(무료)
- 주 최 : 포항시, 포항MBC

[문의 : 포항MBC(289-0122), 시청 평생학습과(270-2871)]

>>>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범훈련 실시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실질적 훈련으로 재난안전역량 강화, 유관 기관·단체간 협력체제 점검, 시민안전의식 확산과 전 시민의 안전요원화, 대형재난사례 훈련을 통한 재난안전능력 보강, 재난대비 인력·장비 확보실태 사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범훈련이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형산고 및 형산강둔치 주차장에서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포항시장)주관으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안전시스템가동 및 재난대응종합훈련(유류오염)으로 포항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30개 단체 350명이 참가한다.

>>>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따른 제보

- 대 상 : 6·25당시 전사한 국군, 경찰, 학도병, UN군 유해
- 내 용 : 직접매장, 매장사실 목격, 들으신 분
- 방 법 : 전화, 우편, 인터넷등으로 발굴현장 제보
- 전 화 : 02)748-4999, 811-6514 / FAX 02) 821-0148
- 인 터 넷 : http://www.withcountry.mil.kr

>>> 시민참여형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

타임캡슐 수장품 수집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포항만의 살아 있는 시민참여형 타임캡슐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타임캡슐 수장품을 공모한다.

- 2069 나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
 - 60년 후 자신 또는 가족의 모습·꿈 등을 엽서·메모지 등에 적어 응모하면 60점을 선정해 타임캡슐에 수장

- 응모기간 : 6월1일(월)~7월3일(금)
 - 미래포항 그림 공모전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품 48점을 수장
 - 응모기간 : 5월4일(월)~5월29일(금)
 - 포항시민 가족사진 공모전
 - 포항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전 개최, 응모된 사진을 M/F으로 제작해 타임캡슐에 봉인
 - 응모기간 : 5월25일(월)~6월26일(금)
- [문의 : 포항시 기획예산과 270-2153]

>>> 하수관거 설치에 따른 교통 부분 통제 실시

죽도빗물펌프장 설치공사의 하수관거 설치에 따라 8월31일(예정)까지 죽도동 한국타이어~죽도빗물펌프장 간 350m, 청룡로~오거리~송도교(동빈내항) 간 700m에 대해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

>>> 제54회 현충일 추념식 및 시민 참배 안내

- 일 시 : 6월 6일(토) 09 : 50
- 장 소 : 덕수동 수도산 충혼탑 광장
- 참석인원 : 유족 및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시민 등 2천여명
- 주요내용 : 헌화 및 분향, 위패실·위령비 참배 등
- 시민참배 장소안내
 - 학도의용군 6·25 전적비 (학산동 포항여고 앞)
 - 전몰학도충혼탑 포항지구전적비 (용흥동 탑산공원)

>>> 포항 정보화 택시 '포스콜' 출범

5월부터 포항지역 법인택시에 고유브랜드를 도입하여 대승객 서비스의 고급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고, 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택시 '포스콜'이 출범했다. [콜센터] 고객맞춤형 브랜드택시 포스콜! 252-1111

>>> 노후차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내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올해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법인 포함)가 5월 1일 이후 신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이고, 대상차량은 5월 1일 이후 차량을 인도하여 잔금지급이 완료(세금계산서 발부일)된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모두 해당된다. 이 경우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감면이 가능하고, 신차를 먼저 감면받은 후 신규등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노후차를 반드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노후차를 먼저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차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고, 개별소비세도 70% 감

면해준다. 다만, 지원상한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98만원, 개별소비세는 100만원으로 최고 198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 :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 오존 경보제 운영

포항시는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 오존경보제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오존 경보제 안내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로 하며, 오존경보제 알림 휴대폰 문자메세지 신청은 시청 환경위생과(270-3091~6)로 문의

>>> 대이동, 남원시 향교동과 자매결연



대이동(동장 허규철)과 남원시 향교동(동장 안동엽)이 자매결연을 맺어 영·호남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5월 3일 대이동 자생단체협의회와 자생단체회장단 35명은 남원시 향교동을 방문하여 남원시 시의회의장 및 향교동 지역발전협의회, 주민 60여명의 환대를 받으며 협약식을 가졌다.

>>>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하세요!

포항시는 지역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식당 중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가 적합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상수도료 30% 감면과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문의 : 남·북구청 위생담당 (270-6183, 240-7182)]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문의 : 250-4640~1, 270-4021 또는 국번없이 127]

>>> 요리교실 Old&New cooking 수강생 모집

1·2세대가 한조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요리를 통하여 건강 증진과 세대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요리교실 Old&New cooking 수강생을 모집한다.

- 교육기간 : 6월2일 ~ 9월1일 매주 화요일 오후 2~6시
 - 교육대상 : 포항거주 60세 이상 어르신과 20~40대 주부
 - 교육비용 : 60세 이상 무료, 20~40대 주부 월24,500원
- [문의 : 포항시니어클럽 249-9277, 9279]

>>> 포항대학, 시민 공개 무료특강 실시

포항대학(세무부동산계열 주관)에서는 올해에도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명강사(시험출제위원)를 초빙하여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대비한 공개 무료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5회째인 특강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저녁 7시부터 매일 3시간씩 포항대학 신의관 1층 합동강의실(10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대학 세무부동산계열 학과사무실(245-1178) 또는 김진욱 학과장(016-544-1179)에게 신청하면 된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시행

알약, 물약, 연고류 등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의약품을 4월부터 약국에서 회수·처리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약품은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가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약품은 사용법을 안내 받고, 사용이 불가한 약품은 약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문의 : 포항시청소과(270-3195), 포항시약사회(274-4480)]

>>>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일제납부의 달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상수도개발, 하수처리장설치, 천연가스차 동차보급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5월 독촉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5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 인터넷 등에 자진 납부를 바랍니다. [문의 : 북구 240-7165, 남구 270-6164]

>>> 제2회 장기산딸기축제 개최

장기산딸기축제가 오는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장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산딸기 시식·시음회 및 판매는 물론 윷놀이, 민속장기대회, 해병의장대시범, 붓글씨체험, 마술쇼, 줄넘기시범, 영일고 댄스팀시범 등의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 2009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안내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울진왕피천 엑스포공원 열린다. 예매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시청 농축산과, 구청 농림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종 류	기준요금 (본판매)	예매요금 (사전예매)	적 용 범 위	
보통권	일반	12,000원	10,000원	만19세~만64세
	청소년	10,000원	8,000원	만13세~만12세
	어린이	7,000원	6,000원	만7세~만12세
단체 할인권	일반	10,000원	7,000원	내국인 3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청소년	8,000원	5,000원	
	어린이	6,000원	3,000원	

포항을 사랑하고 지키는 호국인물 최기영 씨

6월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얼과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포항은 6·25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으로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였다. 그래서 포항에는 호국용사들의 얼과 희생이 서린 전적지와 이들을 기리는 곳이 많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탑산공원이 그 대표적인 곳으로 입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이, 중턱에는 포항지구전적비가, 그리고 정상에는 전몰학도의용군 충혼탑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6·25 당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어린 학도들이 펜 대신 총을 들고 구국의 전선으로 나가 꽃다운 나이에 산화했던 얼과 희생이 간직된 곳이다. 그래서 전장에서 살아남은 포항 학도의용군 출신들은 지난 1979년 8월부터 이곳 탑산에 터를 잡고, 친구이자 전우였던 이들의 애국애족과 희생, 그리고 구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학도의용군 전적물 보존·추념행사 및 현지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몰학도충혼탑관리회 초대회장을 지낸 최기영(78)씨가 그 대표적인 인물. 6·25 당시 포항중학교 학도호국단 부대대장이었던 그는 학도의용군에 자진 입대하여 군번도 계급도 없이 포항지구 천마산 93고지 전투에 나가 부상을 입었고, 부산 제5 육군병원에 후송되



어 2년여 동안 가료 후 퇴원한 상이3급 국가유공자이다. 그는 현재의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건립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등 지금까지 지역의 호국 관련 단체와 현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인물이다. 아직도 거의 매일 기념관을 찾는 이들에게 학도의용군의 얼과 희생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15일 해방60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조국과 민족을 지킨 그에게 '대한민국 건국 공로장'을 수상했고, 그해 6월 17일 매일신문은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매일보훈대상 상이군경부문을 수상했다.

이경우 전 미안마대사 명예자문대사 위촉

포항시 제1호 명예자문대사가 탄생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5월 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경우 전 미안마대사(64)를 포항시 제1호 명예자문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명예자문대사 위촉으로 국제교류는 물론 대외통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명예자문대사는 "지금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각종 국제이벤트 행사유치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상승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활동한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포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이 명예자문대사는 37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정통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사단법인 해피아시아 이사장으로 있다.

늘사랑교회,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늘사랑교회(담임목사 최득섭)는 6일 포항시장학회를 방문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1천만원을 포항시 300억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포항상의, 장학금 5,000만원 기탁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최영우)가 미래의 글로벌인재 육성에 앞장 서고자 28일 포항시장학회에 장학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최영우 상공회의소회장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기업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하며 포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조를 하게 된 것 같다

기쁘다"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서는 안 되겠기에 지역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등에 컴퓨터 기증

남포항포타리클럽(회장 최종락)은 25일 연일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클럽회원 및 최상수 연일읍장과 임영숙 시의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 학생 및 복지시설에 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학생 15명, 장애인 시설인 한사랑의 집, 그리고 저소득층 초등학교생들의 방과 후 공부방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 등 컴퓨터 19대 2,73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포항시인터넷방송(PV)에서 포항을 한눈에!

환동해경제권 국제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포항의 역동적인 모습과 포항시정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tv.ipohang.org
시청홈페이지(www.ipohang.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 울릉도 | 크기 | 53cm X 45.5cm | 재료 | 오일 온 캔버스(유화)]



김기식 Kim Gi Shik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회화과 졸업 (81) / 개인전6회(포항 93-07) / 신조미술협회전(대구 89-94) 서양화도입70주년기념 대구비형상대전(문화예술회관미술관·대구 93) / GROUP비전(대백갤러리·포항·92-95) / 지역현대미술6인의 시각전(포스코문화갤러리·포항·97) / 광복 50주년기념 01 대한민국전(갤러리 상·서울·01) / 2006 "Summer Festival" 지역대표작가 초대기획전(오프리갤러리·서울) / 포항시신청사 회화부문 설치, 700호(포항시신청사·포항 06) / 포항아트페스티벌 수상작가전(수성갤러리·포항 07) 현 포항고등학교

작품평

시인 도연명은 벗들을 만날 때마다 줄 없는 거문고를 탔다고 전해져 온다. 줄 없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소리 없는 음악,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들릴까요. 김기식은 바다를 즐겨 그린다. 바다를 그리지만 실상 바다는 없다. 흔히 바다풍경에서 보이는 파도나 바위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은 오간데 없고 일필휘지 하듯 바른 두꺼운 물감 층과 푸른 색조만이 바다를 암시할 뿐이다. 근작에 들어 그의 말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마치 바람에 빼대만 남은 해송처럼 한치의 꾸밈이나 굳더더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만 허락할 뿐이다. 그는 이런 표현 양식을 통해서 대자연의 근원적인 힘, 지치지 않고 노래하는 바다의 근저에 닿기를 희구한다. 그래서 김기식의 바다는 더 깊고 푸르게 우리에게 다가 오는지도 모른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